2022 개정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활용 방향

이수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며

2026년이 밝았다. 사회과 교육과정의 측면에서 올해는 특히 의미 있는 해이다.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용 『사회』 교과서가 제공된 데 이어, 2026년에는 5~6학년용 교과서까지 제공되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초등 사회과 교육이 비로소 완전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 과목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제안해 보고자 한다.

2. 초등학교 『사회』와 2022 개정 교육과정

가. 『사회』의 교과 목표 개관

본고에서 논의할 『사회』는 비단 초등학교에서만 활용되는 과목은 아니다. 『사회』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공통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는 긴 호흡을 가진 목표가 있다. 바로 "시민의 양성"이 그 목표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지리, 역사, 제 사회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과의 정체성이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이를 토대로 시·공간 속의 인간과 사회현상을 인식하고, 민주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교육부, 2022: 6).

나. 초등학교 『사회』의 내용 체계와 단원 구성

『사회』의 내용 체계와 단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내용 체계에는 지리 인식,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인문환경과 인간생활, 지속가능한 세계,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역사 일반, 지역사,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 체계 안에는 초등학교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3학년이 배울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 요소들이 소개되어 있다. 일반사회 내용 체계를 예로 들면 경제에 관해서는 초등학교 3~4학년에서 경제생활과 국가 경제에 대한 지식·이해와 합리적 선택, 무역의 이유 등에 대한 과정·기능, 공정한 분배에 대한 가능성 등의 가치·태도를 배우게 된다(교육부, 2022: 14-15). 아울러 이러한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10개의 단원이, 초등학교 5~6학년의 경우 12개의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원은 〈표 1〉과 같이 교육과정 순으로 학기별로 구분되어 교과서에 등장한다.

표 1 ── 초등학교 사회의 학년 및 학기별 단원 구성

	3~4학년 단원		5~6학년 단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기	1. 우리가 사는 곳 2. 일상에서 만나는 과거	1. 지도로 만나는 우리 지역 2.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 3. 경제활동과 지역 간 교류	1. 우리나라 국토 여행 2. 우리나라 지리 탐구 3. 법과 인권의 보장	1.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2.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3.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
2학기	1. 사회 변화와 다양한 문화 2. 옛날과 오늘날의 생활 모습	1. 민주주의와 자치 2.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알리는 노력 3. 다양한 환경과 삶의 모습	1. 유적과 유물로 살펴본 옛사람들의 생활 2. 달라지는 시대, 변화하는 생활 모습 3. 식민 통치와 저항, 전쟁이 바꾼 사회와 생활	1. 세계의 자연환경 2. 시장경제와 국가 간 거래 3. 지구촌 사람들

※ 출처: 교육부(2022: 19-38)

다. 초등학교 『사회』의 교육과정 변화

새롭게 제공되는 교과서의 활용 방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교육과정의 변화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은지용(2023)에 따르면 『사회』 과목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난다.

첫째, 학습의 적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사회』의 성취기준이 72개였던 데 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49개로 줄어들어 학습량이 크게 축소되었다. 학년군별로 보면 3~4학년은 기존 24개에서 22개로, 5~6학년은 48개에서 27개로 감소하여 특히 고학년에서 큰 폭의 축소가 이루어졌다(은지용, 2023: 132). 한편, 일반사회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변화 폭은 크지 않지만,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강조하기 위한 성취기준이 일부가 적절하게 신설되었다는 점이 특징으로 손꼽힌다(나경훈, 이동원, 2023: 19). 이 같은 변화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취기준이 줄어들면 교과서 내에 할애해야 하는 지식과 이해의 측면의 내용이 비교적 줄어들게 되어 학생의 참여와 호기심을 이끄는 시도가 풍부해질 가능성이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의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질문과 활동을 구안해내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질문과 활동으로 참여 기회가 확장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신설되는 성취기준은 교육 내용을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둘째, 학습 내용의 계열성이 제고되었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이어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이어지는 과목이다.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급별 학습자의 성장 발달 정도와 사회적 경험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학교급별로 적정 수준의 내용을 배치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이 심화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였다. 특히 중복으로 우려되는 내용을 통합하거나 차별화하는 등 학년에 따라 내용이 중첩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은지용 외, 2022: 22-23). 이러한 시도 역시 교과서를 활용하는 교사와 학생에게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교사는 교과서의 3~4학년군의 내용이 5~6학년군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음을 미리 인지함으로써 교내 학생들의 점진적 성장을 위한 중장기 수업 계획을 짜기에 용이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역시 중학년에서의 수업 경험이 고학년에서의 수업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스스로 반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자인 학생의 공간 범위를 행정 구역 중심에서 생활 경험 중심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성이 담보되는 학습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교과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교사는 학생들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보다 생생하게 다룰 수 있다. 따로 자료를 찾지 않아도 학생에게 맥락적으로 친숙하게 작용하는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 역시 자신의 생활 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경험에 대해 학습 내용과 연결지으면서 보다 실천적인 학습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3. 초등 『사회』 과목의 교과서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이렇듯 다양한 변화를 꾀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 과목의 특징은 실제 교과서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학습 활동 및 평가 지원에 관한 다양한 심사 항목을 준수하며 엄정한 검정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이처럼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난한 검정 과정을 거친 교과서는 단순한 내용 전달 도구를 넘어, 학습자의 탐구와 참여를 이끄는 매개체로 기능하도록 꾸준히 수정·보완의 결과물이었다. 이에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교과서의 특징을 활용하여 수업 장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래는 이를 시도해 봄직한 세 가지 차원의 제안이다.

가. 교과서 내용 함께 보기: 신설 성취기준에 대한 여러 교과서 자료를 다채롭게 활용하는 것

학습의 적정화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성취기준으로 인해 새로운 교과서에서는 그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설된 성취기준인 4-2학기 『사회』에서 다뤄지는 "[4사08-01] 학교 자치 사례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교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능력을 기른다."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 실천 사례의 하나로서 활용된 학교 자치 내용이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의 학교 자치 사례가 활용될 수 있는데, 4-2학기 『사회』 교과서에 포진된 사례들을 다채롭게 참고함으로써 새로운 성취기준에 맞는 참신한 수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출처: 박영석 외(2024). 사회 4-2. 동아출판, 14쪽; 이간용 외(2024). 사회 4-2. 지학사, 10쪽; 전종한 외(2024). 사회 4-2. 미래엔, 19쪽.

그림 1 — 다양한 교과서 속 다양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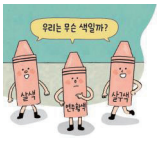
나. 교과서 내용 이어보기: 학년 간 학습 내용의 유기적 맥락을 연계 수업을 통해 활용하는 것

학년, 학교급 간의 계열성이 제고되면 그에 따라 교과서도 계열성에 따른 내용 및 자료의 배치를 고려하여 집필된다. 교사는 이러한 고민이 깃든 교과서를 활용함으로써 학교급 내에서 동일 출판사의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년 통합의 연계 수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4학년 수준의 내용은 5~6학년을 상기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고, 5~6학년의 내용은 3~4학년이 도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지역 간 교류, 상호 의존 관계를 다루는 4-2학기의 내용이 6-1학기의 경제 성장, 무역의 의미와 이유와 연계된다면, 국내외 경제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 학생이 경제활동을 상상하는 공간이 양쪽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는 사회적 인식의 차원과 제도적/실천적 차원의 활동을 연계하는 수업을 구안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3-2학기의 문화 존중의 태도를 다루는 내용이 5-1학기의 인권 보호 활동을 다루는 내용과 연계된다면 학생들에게 개인적 차원의 고민을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계기로도 작용하리라 기대한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볼까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해야 함을 알리고 함께 실천하고자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사회』 3-2학기 교과서에는 성취기준 "[4사03-02]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와 문제를 분석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를 반영한 내용이 등장한다.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할까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인권 보장 기관을 설치하여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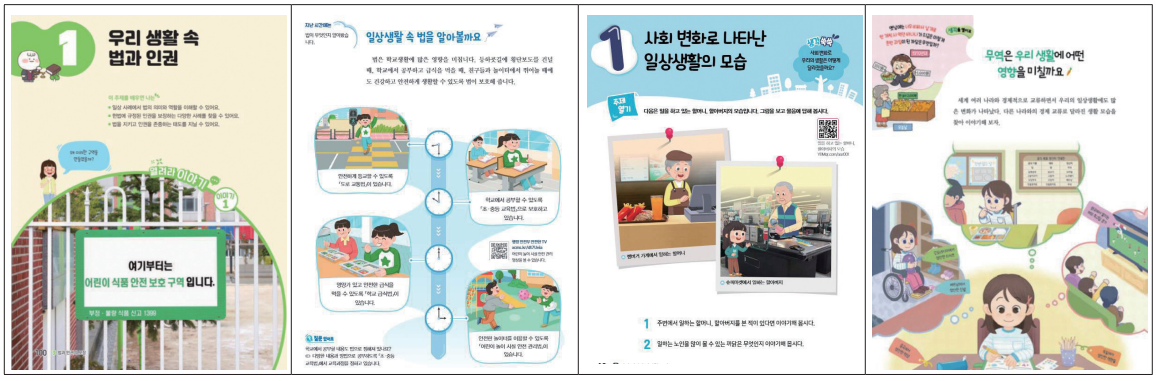
초등학교 『사회』 5-1학기 교과서에는 성취기준 "[6사03-02]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를 반영한 내용이 등장한다.

※ 출처: 설규주 외(2024). 사회 3-2. 비상교육, 49쪽; 설규주 외(2024). 사회 5-1. 비상교육, 132쪽.

그림 2 — 교과서 내용 이어보기의 예시

다. 교과서 내용 그대로 보기: 현재 시민으로서의 초등학생을 존중하며 맞춤형 사례를 활용하는 것

학습자인 학생의 공간 범위가 생활 경험 중심으로 재편되는 교육과정 상의 변화는 교과서 내의 다양한 사례들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즉, 과거에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대한 사례가 많았다면 지금의 교과서에는 학생 맞춤형의 사례와 활동이 더 부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업을 위해 어른의 사례, 가장 최근의 현실을 보여주는 시의성 있는 사례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에 앞서 교과서 내에 학생 눈높이에 걸맞게 제시된 사례에 먼저 주목해보는 수업을 구안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본다. 이 같은 시도는 초등학생 중심의 사례와 활동을 발굴해 활용함으로써 현재의 시점과 시각에서 시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의 일환일 수 있다.



※ 출처: 김정인 외(2024). 사회 5-1. 천재교과서, 100쪽; 한춘희 외(2024). 사회 5-1. 아이스크림, 114쪽; 남상준 외(2024). 사회 5-1. 와이비엠, 10쪽; 박기범 외(2024). 사회 6-2. 천재교과서, 108쪽.

그림 3 — 교과서 속 학생 중심의 맞춤형 사례

4. 나오며

교사의 입장에서 교육과정 문서는 접근하기에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딱딱한 자료인 반면, 교과서는 비교적 가볍게 손을 뻗을 수 있는 일상적인 학습 도구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잘 따른 교과서를 교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흥미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 활용의 핵심은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 탐구와 시민적 실천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더욱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이러한 탐구와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저작물 도구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내용과 외형의 변화를 꾀한 새로운 교과서가 새 학기에 의미 있는 실천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나경훈, 이동원(2023). 교육과정 실행의 관점에서 본 2022 개정 초등사회과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과 논쟁점. 사회과교육연구, 30(2), 19-38.

교육부(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은지용(2023).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징과 쟁점 및 과제. 시민교육연구. 55(4), 121-154.

은지용 외(2022).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 정책 연구 2022-7.

필자 소개

일반사회교육 전공자로, 관심 분야는 사회과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등이다.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8년 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
*2025년 교과서 발행 부수 기준
MiraeN
AI 클래스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엠티처
www.m-teacher.co.kr